

#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 사업 본격화

### 시, 기존 시민의숲 재생 방향서 '전시컨벤션 거점공간' 개발방향 변경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며 새로운 가치 실현에 시동을 걸을 예정이다.

시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민선8기 공약에 맞춰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당초 시민의숲으로 재생하는 기존 방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전시컨벤션 산업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을 10일 밝혔다.

시는 '2035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의 컨벤션타운과 문화·전시복합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시컨벤션 산업의 거점공간으로 만들어 전라도의 경제 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으로 삼기로 했다.

특히 시는 전시컨벤션 산업의 후발주자로서 타 도시 컨벤션센터와의 경

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규모 및 인프라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의 절반 정도 규모를 전시컨벤션센터로 계획해 대규모 전시장·행사장을 확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주한옥마을, 전라감영, 남부시장'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기존 도시들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시컨벤션 산업 거점공간 조성에 필요한 공간확보를 위해 전주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철거를 결정했으며, 이달 중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야구장을 철거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는 시의회 승인을 거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야구장 철거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17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시는 야구장 철거공사를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한 뒤 건축물 멸실신고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후 철거부지 안전 펜스와 부지 정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축제 등의 행사공간으로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전주종합경기장의 경우 49개 입주단체의 사용허가가 올 연말까지로 돼 있는 만큼 철거 시기는 내년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과 전시컨벤션 거점산업 구축을 위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이번년도 안에 세부 계획을 반드시 확정 짓는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은 지난 2005년 전라북도로부터 부지를 양여 받은 지 18년이나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시민들의 피로감이 매우 극심한 상황으로, 경기장 개발을 위한 첫걸음으로 우선 야구장 철거를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며 "전주 대변혁의 상징이자 새로운 미래를 열게 할 경기장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1963년 처음 지어져 제44회 전국체전을 위해 지난 1981년 현재의 모습으로 증축된 후 40년간 사용돼왔다. 이로 인해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해 시설물 안전 등급이 전주종합경기장은 C등급이며, 야구장의 경우 D등급으로 분류돼 안전사고 우려로 본부석과 관람석의 사용이 폐쇄된 상태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본부 추담홀에서 창립 58주년 기념식을 지난 7일 개최했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창립 58주년 기념식

### 우수직원 · 지부 표창 시상 등 진행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본부 추담홀에서 창립 58주년 기념식을 지난 7일 개최했다.

건협 임·직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김인원 회장 기념사, 영상화질관리평가 우수지부, 영상화질관리평가 우수지부 및 학술연구 우수지부 표창 등 시상이 진행됐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건협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님과 임직원, 협회를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환경과 건강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공헌활동을 실천해 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서고, 지난 58년의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시장에 대응하며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상 후, 건협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학대피해아동 '희망터치' 클릭 기부금 약정식을 가졌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희망터치 클릭 기부는 건협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하는 사회공헌캠페인으로, 팝업창의 무료 기부하기를 클릭하면 건협에서 1,000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영태 기자

# 세계 3대 관광박람회서 '관광거점도시 전주' 홍보

### 영국국제관광박람회 참가 한복·한지·한식 등 한문화 콘텐츠 알리

전주시가 세계 3대 관광박람회에서 유럽 여행객 유치에 나서며 '관광거점도시' 홍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삼일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영국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가장 한국적인 관광브랜드를 지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 전주를 홍보했다.

'영국국제관광박람회(WTM, World Travel Market)'는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관광박람회, 독일 베를린 국제관광

박람회와 세계 3대 관광박람회로 꼽힌다. 올해 박람회에는 세계 182개국 500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하고, 개별여행객 등 관람객 8만5000여 명이 참여해 치열한 관광홍보 경쟁을 펼쳤다.

시는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한국관광홍보관에서 한복·한지·한식 등 우수한 한문화 콘텐츠를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로 전주를 알리는데 주력했다.

또 한지등과 전통매듭 브로치, 전주

관광패를 활용한 굿즈 등을 전시해 방문객의 흥미를 끌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현지 여행사와 개별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전주관광 홍보 및 인접 시·군과 연계한 상품 홍보·상담도 진행했으며, 영국 현지 오피니언 리더 대상으로 열린 한국관광설명회에도 참가하는 등 전방위적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특히 시는 한국관광공사 런던지사, 현지 여행사 등과의 긴담회를 통해 유럽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방한 관광객

전주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정명희 전주시 관광정책과장은 "유럽 지역은 관광거점도시 전주시가 확보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유럽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현지 박람회 참가는 물론 유럽 여행업체 초청 전주 관광 홍보,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개별관광객 대상 홍보 등을 통해 잠재 수요층이 실질적인 전주 관광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북환경청, 새만금지구 개발사업 비산먼지 관리 강화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은경)은 새만금지구 내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저감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새만금지구 개발사업 비산먼지 저감대책 협의체 운영회의(하반기)'를 10일 개최했다.

'비산먼지 저감대책 협의체' 운영회의는 새만금지구 내 개발사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사업승인기관·사업자' 등이 참여하며 지난 2018년부터 연 2회 개최되고 있다.

협의체 운영회의는 각 사업장별 비산먼지 저감 대응조치 현황, 비산먼지

저감대책 자율점검 현황, 2022년 상반기 점검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을 발표하고 개선방안 등을 토의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제시된 저감방안 외에 예측치 못한 기상상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세먼지 예보에 따라 공사 시간 조정, 기상상황에 따른 구역별·단계별 순차적 공사 시행 등 다양한 저감대책 및 개선사례 등이 공유됐다.

전북지방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에 맞춰 새만금지구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기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김영태 기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창희)은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건설현장 총 114개소에 대해 점검 계획을 10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점검은 '건축현장 69개소, 도로현장 36개소, 철도현장 3개소, 택지 5개소, 항만현장 1개소' 등이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 유관기관 등 총 53명을 투입해 오는 12월 14일까지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3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현장 15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고강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번 점검은 겨울철 한중콘크리트 시공에 따른 품질관리 실태, 빙 하중에 취약한 동바리, 거푸집 등 가설구조물 설치 및 관리 적정성, 기온 저하에 따른 대규모 지하굴착 등 안전 취약지역 관리 사항, 콘크리트 양생 시 갈판 사용에 따른 밀폐공간 질식 등 겨울철 위험공사 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벌점부과 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며, 단순 착오·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교육 위주로 계도할 예정이다.

## 전주시, 매월 10일 '일회용품 없는 날' 운영

전주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친환경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나섰다.

시는 10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건강보습심사평가원 전주지원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일회용품 없는 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일회용품 줄여서, 아름다운 한옥마을 더 아름답게!'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서는 전주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매월 10일 일회용품 없는 날 운영 △일회용품 줄이기 생활 속 실천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으며, 휴대용 칫솔 세트와 마스크 등 홍보 물품도 배부됐다.

이와 관련 '일회용품 없는 날'은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공공기관 중심의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민간영역까지 확대



하기 위해 매월 10일 운영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매월 '일회용품 없는 날'을 맞아 아침 출근길을 활용해 총 7회에 걸쳐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단지 등 관련 홍보물 1000여 매를 배부했다.

시는 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일회용품 없는 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거리 홍보 캠페인뿐만 아니라, 버스 승강장 내 버스정보시스템 홍보 이미지 송출과 홈페이지 배너 게재 등의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